

Coming to America...to Wait Out the Coronavirus — Visa & Immigration Considerations

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기다리며 —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및 출입국 고려사항

2020년 3월 3일 [Greg Berk](#)
Posted in [Coronavirus](#), [Immigration](#)

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(COVID-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)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바이러스 종식을 기다리기로 했다. 이들은 관련 비자와 출입국 문제, 그리고 세관국경보호청이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.

미국행 비행: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고액 순자산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기다리기 위한 미국 입국을 위해 ESTA 비자 면제나 B-1/B-2 방문 비자를 사용하기로 선택했다. 물론 이는 방문객들이 입국 전 최소한 14 일 동안 "안전한" 제 3 국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.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고,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 한, 이는 명백히 입국이 허용되는 사항이다. 물론 모든 미국 입국 신청에 대한 허가는 미국 입국장에서 세관국경보호청(CBP)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100% 보장할 수는 없다. 입국장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CBP로부터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 받을 것이다. 방문객들은 정직하게 답해야 하며,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증거 자료와 함께 본국에 주거지 및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,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(고용 상태, 주택 소유권, 왕복 비행기표 등)를 구비해야 한다.

B-1/B-2 상용/관광 비자 및 연장: B-1/B-2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방문객은 CBP의 재량에 따라 최대 6 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된다.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된다면, 방문객은 미국 이민 서비스국(USCIS)에 비자 연장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문/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.

ESTA 비자 면제국: ESTA 비자 면제 대상자는 90 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, 입국한 후 ESTA 비자로 연장 신청은 할 수 없다.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국 후 재입국 하여 체류 기간을 90 일 연장하는 것이다. 그러나 CBP는 이러한 재입국 방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객은 짧은 시간 내 재입국을 한 사유와 함께 금융 자산 정보, 본국에 사회적,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.

I-94 (출입국 기록 서식) 확인: 여권에 기재된 입국 도장과 상관없이,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할 때마다 항상 온라인에서 I-94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. 미국에 얼마나 체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권에 기재된 입국장 도장이거나 비자가 아니라 I-94 이다. 체류일이 초과될 경우 ESTA 비자 면제권이 무효화되거나, ESTA 가 없을 경우에는 B-1/B-2 비자가 무효화된다. I-

94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"Get Most Recent I-94"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:

<https://i94.cbp.dhs.gov/i94/#/home>

여권: 방문객은 항상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최소 6 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. 그렇지 않을 경우 CBP 는 I-94 기간을 "짧게" 허가할 수 있다.

더 많은 법률 이슈를 확인하려면 [Coronavirus \(COVID-19\) page](#)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.